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

원불교, 대각개교절 봉축 법등제

박중빈 대총사의 깨달음
함께 체득하자는 취지로
행사는 21일부터 8일간



원불교 대각개교절(4월 28)을 봉축하는 법등축제가 21~28일 원불교 익산중앙총부에서 열린다.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를 주제로 한 법등축제는 원불교 개교이념과 원불교 창시자인 소태산 박중빈 대총사의 깨달음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나 다함께 체득하고 실천하자는 취지다. 소태산은 마음을 들여다보고 원만하게 다스리는 '마음공부'를 주창했다.

원불교의 일원(O)상의 교리를 구현할 축제는 익산성지 순례길, 원불교 심상등 전시, 원불교문화 체험, 소태산 영화제, VR 대각 체험, 삼화병진 MR 체험, 신용리에술난장 등으로 꾸며진다.

대각의 길(대각전), 빛의 길(총부정문), 일상의 길(반백년기념관·영모전광장)로 구성된 순례길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동선을 배치, 빛으로 물들인다. 원불교뿐만 아니라 이웃종교의 작품도 아우르는 제2회 소태산영화제는 생명과 소통을 주제로 열린다.

상영작 중 '베콩강에 악어가 산다'는 영화제의 취지와 가장 부합되는 상생·평

화·통일을 화두로 삼는다. 남북출신의 청년들이 두만강부터 방콕의 이민국 수용소까지 6,000km 달하는 탈북투트의 여정을 담아낸다.

대해스님의 '소크라테스의 유언'과 '산상수훈'을 비롯해 가톨릭영화제 단편부문 대상작 김경은의 '아간 근무', 윤종원의 '오! 다람살라' 같은 상영작들은 영화제가 종교의 다양성을 지향하는 대목.

또 박규현의 '마음쟁김'은 원불교 수행법인 마음공부(마음쟁김)를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자유롭고 행복한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천지연 원불교출판사 편집장과 김형수 작가는 한국 토착사상의 흥망성쇠를 사진으로 기록했다. 전시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

는가'는 부여에서 시작하여 경주의 수운 최제우, 논산의 일부 김항, 김제의 증산 강일순, 영광과 익산의 소태산 박중빈까지 후천개벽 사상의 계보를 잇는 이들의 궤적을 쫓는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순수 만든 작품을 선보이는 '신용동에술난장', 소태산의 구도와 대각과정을 HTC Vive로 엿볼 수 있는 '대각 체험 VR' 등이 축제공간에 마련된다.

원불교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이도하 교무는 "등의 의미가 확장된 '빛'은 어둠을 밝히고 일상을 깨운다는 원불교 사상의 맥락과도 잇닿아 있다"며 "이번 법등축제를 통해 생활종교로서의 원불교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작은 물방울에서 자유를 그리다'

국립전주박물관, 19일 섬진강 화가 송만규 초청 강좌

국립전주박물관은 섬진강 화가로 알려진 송만규 화백을 초대회 인문학 강좌를 연다.

19일 열리는 이번 강연은 '작은 물방울에서 자유를 그리다'를 주제로, 작가가 관심을 가지고 몰두했던



목가적 시선에서 바라본 섬진강의 자연과 작품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강연자로 나서는 송만규 화백은 2000년대 이후부터 섬진강변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섬진강을 소재로 한 현대 신수화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다.

송 화백은 민족민중미술운동 전국연합 의장, 한국민중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장을 역임했

으며, 현재 한국목자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섬진 팔경'이라는 제목으로 가나

인사아트센터(서울)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전주)에서 연달아 전시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강연 진행에 앞서 클래식 공연팀 MOTIVE(첼로-양진영, 플루트-황선주, 비올라-이찬미)의 협주(가곡-목련화, 섬진강 등)가 오프닝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본격적인 강연 진행에 앞서 클래식 공연팀 MOTIVE(첼로-양진영, 플루트-황선주, 비올라-이찬미)의 협주(가곡-목련화, 섬진강 등)가 오프닝 공연으로 열릴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18일까지 국립전주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알렉세이 게르만 JR 특별전 감독의 건강 악화로 불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의사 권고로 한국행 어려워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위원회는 이번 영화제에서 선보일 예정이었던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의 특별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전주국제영화제 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3대 특별전 중 하나인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 시대의 초상'은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 감독의 건강 악화로 불발됐다.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는 지난 4월 4일(한국시간) "최근 연출작인 '도블라토프'가 자국에서 호평을 받아 바쁜 일정을 보내던 중 건강상 문제가 생겼다"며 "4월과 5월에는 해외여행을 떠나지 말라는 의사의 권고로 한국행이 어려워졌다"고 불참의사를 전했다.

그는 도블라토프를 비롯해 총 7편의 상영작으로 구성된 특별전과 마스터클래스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영화제 사무처는 "게르만 주니어 감독의 '전자 구름 아래에서'와 게르만 부자의 연출작 '신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난 제16회·제18회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이미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감독의 작품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객과 감독의 직접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알렉세이 게르만 주니어의 최근작 '도블라토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간 준비한 시간과 노력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본 특별전의 경우에는 감독의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판단해 취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는 무관하게 올해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수상작인 '도블라토프'는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 마스터즈 섹션에서 국내 최초로 상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또 다른 특별전인 '디즈니 레전더리', '되찾은 라울 투이즈의 시간'은 예정대로 올해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만나볼 수 있다.

한편 제19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정해은 기자

'젊은 소리꾼들 모두 모여라'

젊은판소리다섯바탕 참여
전주세계소리축제, 소리꾼 공모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젊은판소리다섯바탕'에 참여할 소리꾼을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99년생 이상 84년생 이하의 남녀 소리꾼으로, 60분 이상의 소리판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신청은 소리축제 공식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뒤, 음원파일 또는 CD와 함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류와 음원 심사를 통해 최종 공모에 선정된 소리꾼들은 축제기간인 10월 3일부터 7일 사이 편백나무숲 무대에 오르게 된다. 최종 선정자는 5월 16일 전주세계소리축제 홈페이지 공지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리축제 관계자는 "소리축제는 젊은 국악인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고민하고, 젊은 소리꾼들을 위한 최고의 무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숨은 실력을 가진 젊은 소리꾼들의 패기 있는 도전과 무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지난해 열린 2017 젊은판소리다섯바탕에 출연한 이광복씨(가운데).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